"장애인들 얼굴이 무척 밝네요"

전남 사회복지 견학 온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사들

전남사회복지사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 달간 전남 지역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13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내 작업장을 둘러보고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호남신학대 박일연 교수, 베르나라 알림바예바, 나탈리아 김, 쟈이다르 쿨루바이예프, 쟈미르 압디카디모프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3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낯선 얼굴의 방문객 4명이 건물로 들어섰다. 이들은 현관에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로비에 앉아 있던 노인들과 서툰 발음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연발했다.

순천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들른 이들은 공무원 1명과 현역 사회복지사 3명으로 이뤄졌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윤동성)의 초청을 받아 한 달 동안 전남지역의 선진 사회복지 연수에 나선다.

사회복지사 쟈이다르 쿨루바이예프(21)씨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던 지체장애 1~2급 장애인들의 작업장에서 "전남 여러 곳의 복지시설을 둘러보는 중인데, 하나 같이 시설 내 장애인들의 얼굴이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은 사회주의 붕괴 후 갑작스런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사회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복지 환경이 한국의 1960~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만 보자면 독립 이전보다 더욱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맞다.

심리학을 전공한 의사이면서 사회복지사로도 일하는 베르나라 알림바예바(40)씨는 "자원봉사자가 어딜 가든 많이 있어서 수혜자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또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2월 윤동성 회장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낙후된 복지제도와 열악한 환경을 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4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특히 순천과 여수 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영유아보육시설 등을 매일 방문하고 있다.

4주동안 연수… "官-民·民-民 협력 부러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쟈미르 압디카디모프(23)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들이 없어 민간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관련 법이나 제도, 파트너십 등을 배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인 3세인 나탈리아 김(34)씨는 "민간단체들의 운영이 눈에 띄게 활발하고 관-민, 민-민 협력 관계도 좋은 것 같아 부러웠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점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신학대 박일연 교수는 "한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체계를 제3세계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짜여진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20일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김정용

성(聖)과 속(俗) 사이의 종교

'속(俗)이 성(聖)을 걱정합니다.'

이는 최근 한국 종교계의 우려스런 현상들을 다룬 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기사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시급성과 더불어 종교계의 후진성 극복을 시사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생각한 것은, 종교계가 스스로 자기쇄신에 대한 적절하고 비판적인 성찰에 예민하지 못하거나 변화 의지가 미흡하다는 거였다. 그래서 속(俗)에 빠져 있을 때, 밖에서 불어오는 거룩한(聖) 바람이 종교계 내부의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데 요긴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종교계가 세상의 마땅한 쓴 소리를 소화하지 못해 방어적이 될 정도로 속(俗)될 까닭은 없다. 더구나 세상의 목소리에 담긴 뜻을 완고하게 외면하고 자신에게 늘 익숙한 독백만을 되뇌는 것은 그리 성(聖)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욱 쫑긋 기울이는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기꺼이 맞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이는 속(俗) 안에서 성(聖)이 새롭게 빛나는 일이다.

비판의 바람을 겸허하게 반길 수 있는 넉넉함과 자유로움은 종교계의 대화와 소통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며 더 나아가 종교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서로 통하지 못하고 통할 수 없는 확신이나 신념은 자기도취 다름 아니며 성(聖)의 옷을 빌려 입은 속(俗)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성(聖)의 본모습은 성(聖)을 화려하게 주장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성(聖)은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을 바꿔놓는 방식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되레 성(聖)을 속(俗)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성(聖)을 속(俗)의 일을 정당화하는 얼굴로 내세우는 것 역시 속(俗)되게 여겨질 따름이다.

속(俗)을 성(聖)으로 오해하고, 성(聖)을 속(俗)된 것으로 그릇되게 보는 무딘 눈을 의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하여 이미 값을 톡톡히 치렀다. 그 값의 대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차가운 마음을 움직여 뜨겁게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곳에서, 성(聖)의 투명한 실천 속에서 성(聖)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신부·광주가톨릭대 교수〉

달빛 아래 가부좌 틀고…

화엄사·대흥사·천은사·내소사 추석연휴 템플스테이 운영

광주·전남 사찰들이 추석 연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례 화엄사는 '달빛아래 다섯날'을 주제로 22~26일 5일 동안 추석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사사자탑 달빛아래 참선을 비롯해 산내 암자 순례, 송편빚기, 계곡따라 솔잎따기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참가자들을 위해 '조상을 추모하는 고성(高聲) 염불기도'와 '합동추모제'를 갖는다. 문의 061-783-7600.

해남 대흥사는 23~26일 2박3일과 3박4일 두 프로그램으로 송편빚기, 차례지내기, 달빛아래 고구마 굽기 등을 진행한다. 1박 당 3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문의 061-535-5775.

구례 천은사는 22~24일 선착순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노고단 산행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천은사에서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까지 오르는 산행을 비롯해 주먹밥 만들기, 천은사 계승민요 배우기, 생태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1-781-4800.

전북 부안 내소사는 22~29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7박8일 등 네 종류의 일정을 마련해 발우공양과 참선 등 산사체험과 함께 변산반도 트래킹, 108염주 꿰기, 윷놀이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참조.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송편 나눠 먹어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나무석)는 14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 광주봉사관에서 '추석맞이 취약계층 송편 나눔'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임동봉사회 소속 봉사원 20여명이 송편을 빚어 임동에 거주하는 편부모 세대, 영세 노인, 새터민 등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62-574-0541.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내일 창립 7돌 기념식

장애인 자립을 돕는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소장 주숙자·이하 센터)가 창립 7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광주 삼일교회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센터의 활동과 연혁을 담은 동영상과 재활생활 장애인 15명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축하 공연으로 박준형씨의 섹소폰 연주와 수화찬양단 '천사들의 노래'의 공연이 마련됐다. 문의 062-264-3157. /정상필기자 camus@